

미술평론가가 본 한국현대건축 오 광수

공간 편집장

5년전 이었다고 생각된다. 國展을 관람하러 간 나는 美術館 입구에 심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투견대회란 깃발을 보고 그 자리에 한참 멍하니 서있은 적이 있었다. 이른바 국가에서 베푸는 미술의 최대의 행사라고 일컬어 온 國展이 열리는 거의 지척에서 투견대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이 너무나도 엉뚱한 두개의 質의 違和感때문에 나는 적지아니 당황해 버렸다. 도대체 그와같은 두개의 상이한 내용의 사건이 그렇게도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확실히 不可思議한 우연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은 作故한 영국의 비평가 허버드 리드(Herbert Read)가 몇년전 일본에 초청되었을 때, 그는 전통적인 양식의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인들과 양장을 한 여인들이 혼류되어 있는 일본의 거리를 보고는 모순과 역설의 나라라고 비평하였다. 계속해서 일본은 滿正한 비평을 하지 않고 서양문화 특히 아메리카文化를 받아들여 동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이말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비평한 것이기도 한다. 전통적인 한복에 스타강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의 몸매에서 한국과 서양이 전연 이질적 상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서구문물의 새로운 조류의 외형은 國際性이란 안이한 신뢰로서 작용되고 있으며 傳統이란 이름의 울가미를 업고 나오는 이른바 아리랑드레스식의 사고방식이 현재 한국의 건축계에 공존해 있다. 극심한 모순과 역설의 악순환이 한국의 문화와 건축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허버드 리드는 예술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힘. 즉 유전적이거나 사회적인 힘의 소산일지라도 일단 창조된 예술작품은 지금까지의 예술사이에서 그 진로를 이탈해 나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형식의 예술작품일지라도 일단 그 시대, 사회의 은청에 응해진 사물이나 그것이 예술작품으로 창조된 연후에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뜻이다.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작품은 그 시대와 더불어 퇴락해 버린다. 우리는 이처럼 간사한 형식의 예술이란 미명의 건축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시대에 가장 아부한 예술가의 작품은 지나치게 도락적인 피상적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상상력의 깊

은 샘물을 갖지 못한 문화와 예술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의 연대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도랑을 파간다. 어제 것과 오늘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을 찾을 수 없는 숨겨진 현실을 우리는 오늘의 한국 건축에서 목격한다. 국적불명의 괴물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파괴해가는 숨겨진 공간속에서 우리들은 건축을 외면하고, 그리고 조금은 건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의 통근 길, 북가좌동에서 광화문까지 버스를 타고 나올때, 내가 만나는 건축적 현상은 비참한 것들이다. 무악재를 넘어오면서 전개되는 도시의 전관은 러쉬아워에 메달리며 아우성 치는 무질서한 교통난과도 같은 번잡으로 서장된다. 갑자기 크다란 흉물물에 휘말리는 기분이다.

인왕산 중턱으로 개딱지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하꼬방들, 살벌한 부록材의 하꼬방들이 나무 한포기 없는 물산의 중턱으로 파들어가면서 흡사 중기를 앓는 머리같이 흉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맞은편 안산편으로 흡사 병풍처럼 曲을 지워 전개되는 이른바 시민아파트群的 그 아슬아슬한 전관은 이것이 우리 현실인가 하고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한다. 보기에도 불안스러운 기초에 다 돌면처리에 소형적 요소란 찾아볼 수 없는 무미한 건조물들의 의미없는 나열은 참으로 인왕산쪽 부록 하꼬방群과 어울림에랴! 산출기의 우아한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죽순처럼 아무렇게나 솟아오른 구조의 단조모음은 배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채 일종의 가분수 현상을 일으켜 허약한 여인이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것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도 산 중턱에 전개되고 있고 그 아래선으로 일반의 주택들이 딱지닥지 늘려져 있어 금방 쏟아져 내릴것 같은 아슬아슬한 기분을 나는 볼때마다 느끼곤 한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하는 이야기로 건물은 있지만 건축은 없다는 말도 光化門에서 종로까지 나오는 동안 아주 진저리 날 정도로 실감해버린다. 이처럼 철저하게도 건축을 외면한 도시를 지구 어디가서 찾아볼 것인가. 옛 도시의 아름다운 구획을 아무렇게나 파괴하면서까지 새로운 구획을 만드는 것은 도시확장의 어쩔 수 없는 정색이라면 공간에서 조차 조화된 역제를 갖어오지 못하는 건축가 자신들이 공간

으로서 건축을 해결하지 못한 응축한 감상의 출구로서 맹탕한 건물들이 경쟁처럼 뻗어나오고 있는 현상을 과연 후세의 건축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는 가끔 서울시가가 百年前의 옛 모습 그대로 환원되었으면 하는 공상을 갖어본다. 만약 그 당시 철저한 도시법규가 있어서 전통적인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내려 왔다면, 그래서 나포레옹 시대의 시가를 그대로 보유했다면 파리의 시가지처럼 서울시가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와같은 상상에 비례해서 오늘날 보여지는 서울의 시가가 그대로 한 백년후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추할 것인가. 얼마전 미국에서 한 5년만에 귀국한 건축가가 서울에 닿자마자 느낀 것이 5年前보다 더 고약하게 추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당시 김포가두의 쓸어저가는 초가집이 오늘날 알록달록하게 채색된 부록材의 양식주택에 비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없는가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것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면서 경박한 외래의 풍조를 그것도 싸구려 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그 건축적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작년 한해동안 서울시의 모습은 현저히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우선 몇개의 고층건물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변모시켰다든지, 주위의 분위기를 압도해 버린다든지 하는 현상은 얼마든지 목도하게 된다. 하나의 고층건물이 세워짐으로서 그 주위의 환경이 변모된다는 지 시작이 전연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은 엄청난 현실이기에 충분하다. 앞뒤 건물의 조화나 배경의 배려, 시야의 비례 등 하나의 통제된 양식이 존재해서 비로서 그 건축을 아름다운 조형으로서 공간속에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될때 건축의 타락은 시작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축의 타락은 바로 이러한 현상의 연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크라이언트의 횡포와 여기에 아부한 건축가간의 책임이다. 또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는 외래사조의 아주 무비판적인 도입, 그것도 외국의 저너리즘을 통해 소개되는 건축의 피상적인 모방이 이른바 건축이란 이름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 잡지를 통해 食傷되어버린 조형을 그대로 옮

겨놓는 식의 빈곤한 상상력의 건축가들이 급조해 내는 건축의 변장은 한국의 건축을 더욱 불투명한 국제양식의 범람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점은 조형감각의 빈곤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건축가의 책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건축은 순수 예술과는 달리 공리성을 전제로 해서 예술성을 표현해나가기 때 문에 사회화의 책임을 가장 길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건축가의 횡포가 갖어오는 영향의도는 참으로 짙다. 이 횡포를 막기 위한 일의 깊이는 批評의 存在다. 그러나 한국 건축계엔 비평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평이 없는 터전에서도 진정한 예술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비평이 없는 터전에서 예술이 탄생된다는 것은 더없는 비극이다. 예해진 부여박물관 양식문제를 둘러싸고 건축가와 일반 시민이 토론을 전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비평의 부재가 갖어오는 가치기준의 결여가 올바른 토론의 전개를 저해한 것을 나는 보았다.

무엇보다 곤란한 것은 공간과 조형의 문제를 전통적인 양식의 재현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건축가들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양식의 현대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작 완자무늬나 한식 지붕의 곡선에서 막은 선의 재현을 고유적인 것으로 대변하는 화광적인 취미는 비단 건축뿐이 아닌 전문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유치한 생각이지만, 그것이 건축이란 현실로 재현되는 경우 단순한 건축의 현실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 영향은 심한 것이다. 지금 그 표본적인 것으로 경복궁내에 세워지고 있는 종합 박물관을 들수있을 것이다. 각각 다른 건축적 패턴을 일당에 모은 다이제스트판이 한국적이란 미명으로 통용되고 있다. 콘크리트로 재현해내는 고 건축의 양식적 특성이 다시금 재생된다고 믿는 그 우매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한국건축의 또 하나의 현실임이 분명하다.

국제적인 조류를 성급히 도입하는 측이나 맹목적으로 전통적인 양식을 재현하려는 이른바 복고주의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건축계는 가장 심각하게 타락해가고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다.